

열린마당

스님도박 왜, 이런일이...

한 스님은 있어서 안될 일이 벌어졌다고 개탄했다. 스님들은 물론 많은 불자들이 얼굴을 들지 못하겠다고 안타까워 했다. 이미 일은 벌어졌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출가정신의 부재, 사찰 재정관리의 불투명, 제도의 사문화, 스님들의 도박행위를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조계종총무원의 직무유기가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스님들이 알아서 쓰라'는 시주관행도 원인으로 꼽았다. 이 사건을 참회와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스님도박이 왜 일어났으며, 대책은 무엇인지 불자들의 의견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지난 13일 음식점에서 도박을 벌인 승려들이 구속됐다는 소식은 교계는 물론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던져주었다. 그것도 한 판에 천만원의 상금도박이었다니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여초구나 없는 일이다. 더욱이 나라 전체가 운동 수재로 실의에 빠져 있는 이 때에 타진 이 같은 사건은 두고두고 회자될만한 불교전체의 치욕거리다. 이번 사건의 근본은 수행자의 본분을 망각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중생의 사표가 되어야 할 수행자가 오히려 중생의 지탄의 대상이 된다면 이 사회는 과연 어디로 가겠는가. 깊이 참회하는 마음으로 수행자가 가야 할 길을 부처님 말씀을 통해 다시 되새겨 본다. <편집자 주>

이렇게 들었다

수행자들이여, 마음이 사퇴려고 할 때 그것을 따르지 말고, 마음이 율타하려 할 때 그것을 따르지 말고, 생각이 약해지려 할 때 그것을 따르지 말고, 생각이 부끄러워 할 때 그것을 따르지 말라. 마음을 단속하여 마음이 사람을 다르게 할지언정 사람이 마음을 다르게 하지 말라. <불반니함경> 수행자들이여, 마음이 번거로우면 세상이 번거롭고, 마음이 맑고 깨끗하면 중생계 또한 맑고 깨끗해진다. <잡아함경> 비구는 법답게 살아가면서 중생들을 두려워하지 말지니, 마음을 고요히 하고 나쁜 행동을 멀리 버리고 계율을 지키 고요히 쉬라. <별적잡아함경> 수행자들이, 너희들은 스스로 마음을 거두어 들어 행 동거지를 올바르게 해야 한다. 해야 할 것을 하고, 하지 않아야 할 것을 하지 않으며, 좌우를 보고 몸을 펴고 구

수행자의 본분 "어리석음의 씨를 심지말라" <불반니함경> 수행자들에게 세 가지 잘못된 생각이 있어 피안에서 이르지 못하게 한다. 그것은 육신에 대한 잘못된 견해, 계율에 대한 그릇된 견해, 그리고 따져 알 수 없는 것들에 매달려 의심하는 것이다. <중일아함경>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일곱 가지 번뇌를 말하리니 명심하라. 탐욕, 분노, 교만, 어리석음, 의심, 자기 견해에의 집착, 그리고 세간 일에 매달리는 것들이니라. 수행하는 사람이 이러한 일곱 가지 번뇌에 얽매면 번민을 벗어나지 못하느니라. <중일아함경> 만약 수행자의 처지에서 중생이 겪는 온갖 불행은 바라본다면 무엇이 비할 것인가. 중생들은 근고(勤苦)의 뿌리와 어리석음의 씨를 심으며 살고 있는 것이니, 진정한 수행자의 눈에는 다 타기할 것으로 비할 것이다. 그러므로 오직 생사의 병을 모면코자 할진대, 주야로 정진하여 도의를 버리지 않고 무위(無爲)를 구해야 하느니라. <수행도지경>

계율 어디로... 참회운동 펴야

지원스님 <전불련 상임의장>

가끔 초발심자경문을 들쳐보다 깜짝 놀라곤 한다. "만약 출가의 뜻을 저버리지 아니한다면 반드시 명산을 향하여 묘지(妙旨)를 궁구하되 일의일발(一衣一鉢)로 인정을 끊고 주리고 배부름에 무심하면 도가 저절로 높아질 것이니라." 인격을 완성시키고 사회와 인류의 중생을 제도하는 데 출가의 본뜻이 있다고 했는데, 아운스님이 남긴 자경문의 한 구절이 칼 끝처럼 시리게 다가온다. 조계종포교원에서 펴낸 <불교 입문>에서는 스님을 "제가불자의 정신적 지도자로서 제가불자들이 받들어 존경하며 항상 가르침을 받는 친근한 분"이라고 불교에 입문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제가불자들은 수행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의복이나 음식, 약 등을 공양해야 한다"고도 했다. 제가불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는데, 수행자의 신분으로서 도박을 한다는 것은 대방천지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한국경제는 예측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해 있고, 사회는 물난리로 온통 나라 전체가 발집 쭈셔놓은 듯 어수선하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때에 승려들이 불교와 사회에 물의를 빚는 것에 대해 불교도들과 국민 앞에 머리숙여 사과하지 않을 수 없다. 왜 출가했는가. 배 부르고 등 따뜻하게 살고자 했었는가. 중단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금까지 말만 무성했던 일들에 대하여 과감히 대처해 중단 정화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새로운 대책을 세우라는 말이 아니다. 출가정신의 회복, 새로운 교단을 세운다는 각오로 대참회운동을 펼쳐야 한다.

정재관리 투명성 확보 급선무

신근식 <삼보법회 이사장>

귀중한 삼보정재를 관리하고 집행하는 책임자에 의해 도박의 뒷돈으로 쓰여졌다는 소식을 접하고 한동안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다. 사리사욕을 위해 부처님 돈을 남용한 사람들의 큰 허물은 이루 말할 수 없으리라. 아울러 우리 불교신도들 또한 결과적으로 이런 행위를 도운 셈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스님들을 타락으로 내몰지는 않았다. 정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다. 위없는 부처님의 뜻을 저버린 행위로 인해 무간지옥으로 직행하는 스님들의 모습은 부처님 돈이 사된 행위에 쓰여지는 것에 경종을 주신 부처님의 자비 이시다. 삼보법회는 64년 창립 이래 68년부터 재정공개제를 실시하고 있다. 매월 항목별 수입금과 지출금을 월말을 마감일로 다음달 15일 이내에 모든 회원들에게 보고하고, 매년 12월 30일을 연말결산기준일로 정하여 신년 1



월 30일 이내에 연말결산서를 작성하여 정기총회 때 회원들에게 배포한다. 조계종 종법상에는 사찰운영위원회라는 제도가 있다. 사찰의 관리와 운영의 능률화 공개화 공정화를 목적으로 한 사찰운영위원회에 따르면, 각 사찰은 7~30인 이내의 스님과 신도들로 구성, 사찰의 예·결산을 비롯한 사찰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토록 하고 있다. 94년 개혁종단의 개혁정신을 반영한 훌륭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우리 불교계는 물론이고 모든 종교단체가 흔탁한 물결위주의 현실을 극복하는 길은 우선 재정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이루는데 있다고 확신한다.

개혁종단 감찰행정 직무유기

김동훈 <경불련 운영위원장>

스님들이 무슨 돈이 그리 많이 도박을 했는지 궁금하다. 많은 부분은 신도들의 보시금이 아닐까. 각종 불사를 하며 이종으로 영수증을 발행한다는 얘기도 들었다. 일부 승려들의 도박·부패는 이미 문제제기 되어 왔음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 96년 당시 율하 조계종총정에서 총무원장에게 은처승과 도박 승을 척결하라는 지침을 내리기도 했다. 이후 중앙총회에서 "도박승과 은처승이 있다" "이미 조사가 상당 부분 진척되었다"는 총무원의 보고가 있었다. 그런데 그후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 그렇다면 도박승이 있으며, 조사가 진척되고 있다는 보고는 업무용이었다. 아니면 개혁종단 임을 선전하기 위한 수단이었는 지 묻고 싶다. 결국 총무원이 이번 '스님도박' 사건을 사전에 알고도 조치하지 못한 직무유기를 범한 셈이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한 우를 범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종헌종범에 의거한 엄정한 자세로 임하길 당부한다. 아울러 무주상보시를 미덕으로 여기는 불자들의 의식과 헌금 방식에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싶다. 신도들의 보시 가운데 재시(財施)는 교단의 수호와 발전 그리고 스님들이 수행에 필요한 물질을 담당하는 행위이다. 필요한 만큼의 물질이 너무 크고, 알아서 쓰라는 시주 관행이 스님을 도박관으로 내몰지는 않았는지 깊이 생각해볼 일이다. 보시를 할 때 돈이 쓰일 곳을 명확히 하고 돈이 목적대로 올바르게 쓰이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절에 가서 가족의 평안과 복만을 받고 오는 것은 진정으로 불교를 사랑하는 길이 아니다.

PC통신 유감... 한숨

수재의연금으로 쓰시지

○... '스님도박' 보도 이후 시대를 나가봤는데 다양한 메시지가 눈을 통해서 저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한번씩 쳐다보는 것이었고, 그리고 간혹 질시의 눈이었고, 더러는 위로의 눈이였습니다. 이 어려움때 기천만원씩 도박이란 일반인으로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IMF, 홍수재해, 구조조정, 핵발전 등 많은 사건들의 연속인데 수재의 연금에 못내더라도 기천만원대 도박이랴. 장성운(유니텔/백강)

차리리 출가 말았어야

○... 스님들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 돈(수 억)

도 모두 불자들이 준비한 돈 아닙니까. 정성들여, 요즘같이 어려운 때에 내는 돈을 도박으로 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스님이라는 존재자체가 보통 인간들이 견딜 수 없는 유혹을 물리치고, 어떤 경지에 오르는 그런 존재가 되지는 못할 망정 평범한 인간만도 못하다면 차라리 평범한 인간이 되지 스님을 위하여 합니까? 강석춘(유니텔/cutegaea)

초발심으로 돌아가길

○... 스님들도 우리 불자들처럼 발심하고 공부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일은 넘어진 것뿐. 넘어진 것도 공부지요. 다만 넘어졌으니 무릎이 아픈 과는 피할 수 없겠지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께서 도박이라는 방편으로 우리 불자들에게 육식을 나타내신 것이죠. 육식을 밝혀주신 모든 부처님께 감사드리며, 또 넘어지신 스님들의 빠른 회복을 원합니다. 박문수(유니텔/웅119)

비온뒤 땅이 굳어지듯

○... 화투가 뭔지도 모르는 저같은 스님들이 더 많다는 것을 잊지 마소서. 이번 기회로 스님들의 이미지가 내려간 것 같지만 심기일전해서 불자로서의 면모를 다지도록 같이 노력합시다. 비엔 뒤 땅이 굳어지듯 시행착오 속에서 재복재복 불성은 더 싹트고 있겠지요? 월명암 뒷채에서 생식하시며 선객들에게 무언의 가르침을 내리는 월명론스님을 떠올립니다. 이현자(유니텔/반조)

많은 스님들 오직 정진

○... 종교를 믿는다는 것은 성직자들의 훌륭한 정신과 수도생활 등을 보고 듣고 따르는 것도 있지만, 본질은 종교의 가르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님도박' 뉴스를 접하고서 불교도 어쩔 수 없더라든지

스님들은 모두가 그렇거라고 치부해 버리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 그럴 수도 있겠다고 넓게 바라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불교승(유니텔/s1bud2)

재발방지책 마련을

○... 불교는 자기 정화능력이 매우 떨어집니다. 허물을 지적하는 것을 무지비한 일로 보는 잘못된 자비관에 기인합니다. 아무리 승단의 부패를 개탄해 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 배경을 분석하지 아니하고 또 단호한 승단정화 의지를 표명하는 단체나 스님이 없는 한 그것은 절대로 해결되지 않고 반드시 재발되거나 깊어지게 마련입니다. "악행과 비리를 묵인하는 자는 불교 가운데 원수이다." <대일반경> PBOJANG(천리안)

無比스님 경전강의 테잎



무비스님의 경전강의를 접해 보셨습니까? 바쁜일상 생활이지만 잠시라도 시간을 낼수 있다면 혼잡한 마음을 조용히 하고 꼭 들어 보십시오. 무비스님이 직접 전해주는 감로수 같은 일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강경 · 지장경 · 진심직설 - 무비스님 직접강의

- 금강경 강의 : 테잎20개 ₩45,000
● 지장경 강의 : 테잎20개 ₩45,000
● 진심직설 강의 : 테잎20개 ₩45,000

● 구입문의 : 02)732-1522 ●

문구암스님 범음·범패집



TAPE 목록

- ① 불공의식 ② 삼신이운 ③ 신장청 · 신준공공 ④ 상단청 ⑤ 상단권공 · 거목 ⑥ 대령 · 관육의식 I ⑦ 대령 · 관육의식 II ⑧ 대령 · 관육의식 III ⑨ 영반 · 북청소리 · 대천수소리 ⑩ 영산작법 I ⑪ 영산작법 II ⑫ 영산작법 III ⑬ 영산작법 IV · 지장청사 ⑭ 지장청사 II · 지장권공 ⑮ 지장권공 II ⑯ 전사식 ⑰ 배송 ⑱ 운심계 ⑲ 범사이운 · 명전점안 ⑳ 중성 · 천수작법 · 요장

큰스승 문구암스님께서 직접 녹음하신 카세트테잎 1질

불공의식, 삼신이운, 영산작법, 대령, 관육의식등 분야별로 녹음

● 구입문의 : 02)732-1522 ●